Market Index / 2일

코스피지수	▲	5859.08 +128.34	코스닥지수	▲	734.36 +9.98	유가(WTI, 달러)	▲	104.12 +2.12	환율(원)	1USD	살때 1367.41	팔때 1320.39	1EUR	살때 1534.91	팔때 1475.03
										100￥	866.61	836.81	1CNY	212.36	192.14

일본 관광객 반려견 동반 제주여행 첫선

제주도·관광공사, 일본 여행사와 손잡고 상품 개발
숙박·관광지·음식점 등 연계한 '원더풀 제주' 선봬
직항편 이용 반려견과 제주 자연·마을·먹거리 체험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제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제공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제주 여행상품이 첫선을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최초로 개발한 일본발 반려동물 동반 제주 여행상품을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일본 여행사 에프트래블(F-Travel)과 협력해 선보인 이번 '원더풀 제주'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숙박시설과 관광지, 음식점 등을 연계한 여행상품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여행도 함께하려는 수요에 맞춰 기획했으며, 일본 현지에서 판매됐다.

참가자들은 간사이와 나리타에서 출발하는 제주 직항편을 이용해 반려견과 함께 제주를 찾았으며 미니어처 슈나우저, 시바견, 미니어처 닥스훈트 등 다양한 견종의 반려견과 함께 제주의 자연과 마을을 둘러보고, 지역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번 상품 개발을 위해 지난해 4월 일본 여행사 관계자를 제주로 초청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을 답사하고, 동물병원과 검역기관을 방문했다. 이후 검역 절차와 이동 여건 등을 확인하고, 숙박시설·관광지·음식점의 동반 이용 조건을 조율하며 상품 운영을 준비해 왔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일본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제주 여행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참가자 의견과 현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을 보완하고, 일본 전문여행사 및 도내 관광업계와 협력해 지속적인 판매와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이성웅 씨,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서 농림부장관상



제주 레드키위 농가 이성웅(65·서귀포시 도순동·사진) 씨가 국내 최대 규모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하나로마트 농협 울산유통센터에서 열린 '제35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은 국내 최대 농업인단체인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표적인 농산물 축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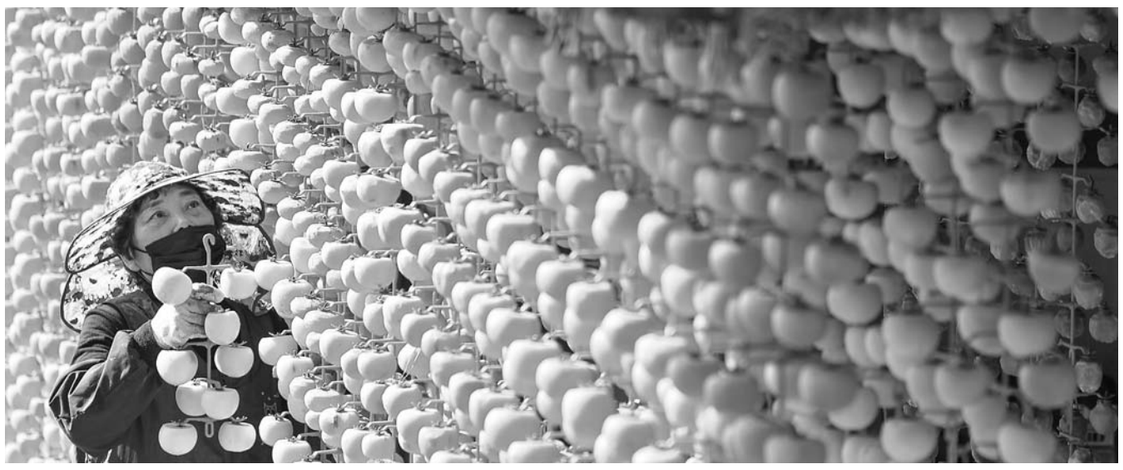
각 지역의 400여개 우수 농산물이 참여한 이번 으뜸농산물품평회에서 레드키위를 출품한 이성웅 씨가 과실류 부문 최고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딸기잼을 출품한 김성은(53·한경면) 씨는 농촌진흥청장상(특별화훼), 메밀가루를 출품한 임보순(56·여·조천읍) 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특별화훼)을 받았다.

또 파파야를 출품한 기민욱(30·대정읍) 씨는 농협중앙회장상(과실류), 건취나물을 출품한 김병수(54·애월읍) 씨는 한농연중앙연합회장상(특작류)을 수상했다.

장관상을 수상한 이성웅 씨는 "레드키위가 다른 과일류와 비교해 판로가 적어 유통의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레드키위 판로와 유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레드키위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곶감이 주렁주렁 2일 경북 상주시 외남면 상주곶감공원에서 한 주민이 곶감 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찾는 관광객을 잠재적 해외 바이어로"

중국·대만 관광객 86% 차지… 소비재 수출 고작 18.7%
홍콩·대만-화장품, 일본-사탕과자류 귀국 후 구매 연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구매 성향을 토대로 홍콩·대만은 화장품, 일본은 사탕과자류 수출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는 '제주 관광데이터를 활용한 제주 소비재 수출기회 발굴' 보고서를 발간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특성과 제주 소비재 수출 실적을 연계해 새로운 수출시장 발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규모와 구매 성향을 해당 국가로의 소비재 수출 실적과 비교해 관광과 수출 사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26년 1~8월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시장과 제주 소비재 주요 수출시장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대만은 분석대상 10개국 관광객의 86.1%를 차지했지만, 이들 국가로의 수출은 같은 10개국 대상 6개 소비재 수출액의 18.7%에 그쳤다. 특히 2025년 조사에서 일본 관광객의 간식류 구매율은 86.3%, 홍콩과 대만 관광객의 향수·화장품 구매율은 각각 61.2%, 56.5%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상품군별 구매 성향과 수출 실적을 토대로 홍콩·대만의 화장품, 일본의 사탕과자류 등을 해외 구매 가능성을 추가로 검증할 후보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관광객이 제주에서 발견한 상품을 귀국 후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국어 상품정보, 현지 판매처, 온라인 주문·배송 경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장은 "제주기업의 관광 체험과 해외 마케팅 활동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관광객의 관심을 귀국 후 실제 구매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관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소규모 구매 연계 실증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노지감귤 출하철 맞아 가격 안정 총력

올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가 전망 속 평균 누계가격 하락
도, 유관기관 대책 회의… 품질관리 강화·소비촉진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위성곤 도지사 주재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품질관리 강화와 출하 조절, 소비촉진 확대 등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은 44만3300t으로 지난해(41만965t)보다 7.8%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누적 출하량은 2만7037t이며 평균 누계가격은 5kg당 9778원으로 전년(1만297원)보다 5% 낮다.

이날 회의에는 이춘협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강동만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장, 송창구 제주감귤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도내 농·감협, 수급관리기관, 가공·유통업체, 감귤 재배농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는 과일 시장 전반의 침체와 공급과잉·저품질 감귤 유통을 감귤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엄격한 품질 선별을 통해 고품질 감귤을 출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가와 유통조직에 수확 전 품질관리와 선과장 품질 선별을 강화하고 상품 외 감귤 유통 차단과 기상·시장 상황에 따른 분산 출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주요 대형·중소형 마트와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12월 1일 '감귤데이'와 연계한 소비촉진 활동을 펼치는 등 제주감귤 판매 확대를 위한 통합마케팅 전략을 발표했다.

위성곤 지사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농가가 안심하고 감귤을 출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오소범기자

제주도정소식

2026 대한민국 제주정원문화박람회...
(기간) 2026. 11. 6.(금)~11.10.(화), (장소)서귀포시 바람모루공원
***행사내용: 정원 전시, 가든시네마, 가든음악회(하림, 한동근, 장필순, VOS, 송순희 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연계 탐나는전 추가 적립
- ㅇ 행사기간: 2026. 11. 1. ~ 11. 15.
- ㅇ 주요 혜택
  - 행사기간 중 결제금액 35만 원까지 캐시백 5% 추가 적립
  - 기존 캐시백 10% 유지(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
  - 월 캐시백 적용 결제한도 100만 원 연말까지 연장
- ㅇ 적립 혜택: 행사기간 중 최대 15% 캐시백
  - 35만 원까지 15%, 초과분은 10% 적립
  - 월 최대 10만 원 캐시백 혜택
- ㅇ 유의사항: 추가 적립은 국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ㅇ 문의 경제정책과 ☎064-710-2516

공공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 ㅇ 신고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시행하는 공사(출자·출연기관, 공기업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수리 공사 제외
  - 임금 체불에 관련 사항 제외(고용노동부 소관)
- ㅇ 신고사항
  - 불법 하도급(일괄·재하도급) 및 대금(하도급대금, 건설장비대금, 자재대금) 체불, 불공정행위(각종 특약 요구) 등
  -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 및 안전관리 소홀 등
- ㅇ 신고방법: 방문, 인터넷, 전자우편, 우편, 팩스
  -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제2청사 본관 2층)
  - 인터넷: 도 홈페이지 내 '공공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 전자우편: 제주특별자치도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우편: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건설과
  - 팩스: 064-710-2679

2026년 11월 이달의 제주 독립운동가
- ㅇ 성 명: 김 상 추(金商秋)
- ㅇ 생몰년월일: 1908. 2. 20. ~ 1993. 10. 14.
- ㅇ 본 적: 제주 서중 신흥
- ㅇ 훈 격(연도): 대통령표창(2022)
- ㅇ 운동계열: 국내항일
- ㅇ 공적개요: 1928년 3월 제주공립농업학교 3학년 재학 중 동맹휴교 및 일왕(日王)에 대한 비판글 작성에 참여해 활동하다 체포되었고, 이후 퇴학처분을 받았다. 1929년에는 일본에서 대판조선노동조합 북부지부 신임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30년에는 동아통항조합 임시대회에 제주도 대표로 참석하였다가 검속되었다.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
□ 추진개요
- ㅇ 기 간: 2026. 11. 19.(목) ~ 11. 23.(월) / 5일간
- ㅇ 장 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 ㅇ 참가인원: 6.5만 명 내외
- ㅇ 행사성격: 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 ㅇ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 주요프로그램
- ㅇ 공식행사: 개막식, 폐막식, 술 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 ㅇ 학술·비즈니스: 감귤학회, 신품종 감귤 강연, 바이어상담회, 농업부분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 ㅇ 경연행사: 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 ㅇ 문화·공연: 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 ㅇ 체험행사: 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 ㅇ 빅 이벤트: "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 - 감귤품장 경품 체험

□ 입장권안내
- ㅇ 현장구매: 2,000원
- ㅇ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 1,000원
- ㅇ 무료입장: 국가(독립)유공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른 등

□ 문의
- ㅇ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 ㅇ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732-3380)

주간 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노지감귤
- ㅇ 극조생 감귤 수확 및 출하 중
  - 출하 시 품질기준(당도 8.5°Bx 이상) 준수
- ㅇ 수확 7~15일 전까지 부패방지제 살포(농약별 안전사용기준 준수)
  - ※ 비가 내릴 경우 3일 이상 건조 후 수확하며, 수확 후 3일 정도 예조

만감류
- ㅇ 온도관리: 외기온도로 관리하며 환기 철저
  - ※ 주간·야간 온도차가 크면 과일에 이슬이 맺히면서 부피과 등 발생 가능성 높음
- ㅇ 물관리: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관수량 조절

당근
- ㅇ 양분관리: (3차) 파종 후 70일 경 요소 9kg/10a 시비
- ㅇ 병해충 관리: 무름병, 세균잎마름병, 검은잎마름병 등 예찰·방제

양채류
- ㅇ 병해충 관리: (양배추) 무름병·나방류 등, (브로콜리) 검은썩음병, 검은무늬병 등, (비트) 갈색점무늬병 등 예찰·방제

콩
- ㅇ 수확시기: 잎이 누렇게되어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 이상 변색될 시
  - 기계수확 시 성숙 후 15일 후(개화 후 60일 경) 줄기와 꼬투리 마를 때
  - ※ 착협고 위치가 낮을 경우에는 손으로 수확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ㅇ 수확 후 철저한 건조·정선 필요

월동무
- ㅇ 2차 양분관리(10a 기준): 1차 시비 후 15일경 요소 11㎏, 염화가리 8㎏시비
- ㅇ 병해충 관리: 나방류 및 벼룩잎벌레 등 예찰 방제

가을감자
- ㅇ 병해충 관리: 나방류 등 해충 예찰·방제
- ㅇ 최근 잦은 비로 배수로 정비 및 무름병, 역병 방제 필요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써니트, 사라향, 설향, 유라, 레몬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7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